



# 문화매일신문



제1564호

2024/4/11/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경기도 북부 지역 콘텐츠 스타트업에 4억 원 규모 사업화 자금 지원

## 전남도 고속도로 법면, 공익형 태양광 부지로 재탄생

○ 경기도 북부 권역 예비/신규창업자 및 이전 기업 20개 사 모집  
 ※ 경기도 북부 권역(8개시): 고양, 파주, 김포,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콘텐츠 창업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위한 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전남도, 도공 등과 협약...국내 최초 공공주도 방식 추진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설립하고 경기 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이 운영하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2024년 북부권역 콘텐츠 융복합 창업지원' 사업에 참가할 콘텐츠 기업 20개 사를 5월 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북부 권역 소재의 콘텐츠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20개 사에는 오는 6월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총 4억 1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업 수행 기간 동안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회계 기초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희망자는 의정부에 사업자 주소지를 등록하는 가상오피스도 이용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북부 권역에 창업 예정인 예비 창업자 또는 북부 권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인 설립 7년 이내의 콘텐츠 기업이다.

신청은 경콘진 누리집(www.gcon.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경콘진 북부권역센터 창업지원 담당자(031-877-2716, heya@gcon.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콘텐츠 융복합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며 제조업 중심인 경기 북부 권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에 소재한 지역 거점 취·창업 지원 센터인 북부 경기문화창

조허브는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창업 자금 지원 등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 권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공공 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법면 등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자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발전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고속도로 법면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면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유휴부지를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해 각종 고속도로 부지와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부지를 발굴·제공하고, 발전수익 도민 지원 확대를 위해 부지 사용료를 인하한다. 전남개발공사는 발전소를 구축하고 발전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 전남도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고 발전수익 도민 공유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총괄한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안전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5MW, 8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수소·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 협력 가능한 에너지 신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도로공사 유휴부지 발전수익금을 토대로 도와 시군 전입금, 각종 도민발전소 수익금 등을 한데 모아 가칭 '에너지공영화 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재원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용자사업, 재생에너지 펀드 투자, 취약계층 긴급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 도로공사의 열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고속도로가 미래 신재생에너지의 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도민발전소를 본격 확대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 노력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사업을 최우선 제안,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 결실을 봤다.

박종배/기자

## 김학홍 행정부지사, 경상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현장 방문

응급환자, 병원간 전원 이 필요 할 시 신속히 연결해주는 역할 수행  
 도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당부... 관계자들 격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9일, 경상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대구 중구 소재)을 방문해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다.

지난 달 4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에 임시 개소해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했다.

지난 1일부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원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역별 광역상황실로 전환해 4개소를 운영한다.

이에 경상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경남을 담당하는 전원 컨트롤 타워로서 24시간 운영되고, 상황 의사 1명과 상황 요원 3~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를 한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



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응급실의 의료가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병원의 최종치료 가능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권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연계한다.

이날,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상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실 운영 상황과 응급 환자 전원 상황과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듣고 상황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근수/기자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상권 광역 응급상황실 근무자들이 사명감으로 응급환자가 적시에 전원 되어 치료받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5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닮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관광·산림 조례 제정으로 관련 분야 활성화 기대감 UP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제정된 관광·산림 분야의 조례가 도민들의 안정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국내외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2023년 10월 김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가 문화의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내 등락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고,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

조 8천억에서 2021년 6조 3천억 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캠핑장 수 대비 이용객은 저조하다는 평을 받아 왔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경상북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록야영장에 대해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총 492백만원(국비 378백만원, 도비 11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친화형 우수 캠핑장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경북도는 100백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가축친화형 우수 캠핑장을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국내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한편, 여행객들의 관광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 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도내 각종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물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친환경 에너지화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

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면적의 71%가 산림지역으로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많은 산림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된 산림부산물은 산물이 대형화되는 원인이 되고,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조례는 산림부산물 활용을 위한 시책수립·시행,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실태조사, 우수 실천사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산림부산물 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이후 경북도는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 등)를 활용하여 축산농가나 매통으로 지원하는 등 산림부산물이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은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캠핑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마다 산불로 인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산림부산물 활용을 통해 행여나 발생할지 모를 산물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

박미옥 의원 “교육청과 도청 업무연계 중요...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도청)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



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레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 안양시의회, 뉴미디어 활용해 시민과의 적극 소통 나선다

오는 15일까지 SNS구독 이벤트 진행 및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스튜디오 구축 완료

안양시의회는 지난 8일 뉴미디어(SNS 및 유튜브 등)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15일까지 안양시의회 SNS구독이벤트를 실시한다. 안양시의회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SNS 팔로우를 맺은 후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또한 지난 3월 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자체 콘

텐츠 제작이 가능한 촬영 스튜디오 구축을 마쳤다. 이 곳에서 시의원이 직접 설명하는 조례 제정 또는 단막극 형식의 의정활동 콘텐츠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최병일 의장은 “뉴미디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획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2024  
봄꽃과 함께 피어나다  
안양시의회 SNS 구독 이벤트

2024년 4월 5일(금) - 4월 15일(월)  
당첨자 발표: 4월 19일(금)

안양시의회 SNS 구독하고  
베라 더를 주니어 Get! Get!! 150명

구독한 채널숫자만큼 당첨확률도 UP!

프로필 사진의 꽃을 확인 후 구독

안양시의회  
youtube.com/@AnyangCouncil

안양시의회(공식계정)  
facebook.com/AycouncilOfficial

안양시의회  
instagram.com/aycouncil

구독하면 쟁쟁 후  
네이버폼 전송!

##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함으로써 통행료 면제를 통한 다자녀가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

항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안을 준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 11월부터 도입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그동안 부담금을 징수해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서초구와 용산구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한참 낮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한 두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공공·민간 차원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중섭 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신평옥 선장으로 부터 감사패 받아

###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지원에 앞장

전라남도의회 주중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4월 6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과 그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9월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과 가족들은 재심 무죄를 지지해 준 적금도 마을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고, 주중섭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과 배우자 김미리 여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중섭 의원은 북한에 납치됐다 간

첩 누명을 썼던 납북어부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들을 만나 꾸준히 소통하며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들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 방안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왔다.

신평옥 씨는 “지난 세월 동안 억울함과 두려움의 응어리진 마음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분들의 도움과 고마운 마음을 받았으며, 특히 주중섭 의원의 각고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아픈 마음을 많

이 위로해 주셨다”며 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감사패를 받음에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다”고 언급하며,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명예회복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중섭 의원은 최근 정부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어린이 모의투표 “투표할래?! 우리의 어린이박물관” 성료,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전시는?

지난 2024년 4월 6일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송문희)은 공휴일 특별체험으로 '투표할래?! 우리의 어린이박물관'을 진행했다. 해당일에 방문한 어린이들이 뽑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대표전시 1위는 14.3%의 지지를 받은 《바람의 나라》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우리 몸은 어떻게?》가 12.6%로 2위, 《자연 놀이터》로 11.5%로 3위였다.



이번 행사는 사회와 연계 강화와 시의성을 반영한 어린이 체험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 역량인 시민의 자질 함양에 주목하여 기획됐다. 어린이가 투표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투표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도 투표를 연습해요! 내가 뽑은 어린이박물관 대표 전시는?”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박물관에 방문하여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후보들(1층 5개, 2층 4개, 3층 5개의 전시관 총 14개의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한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강사의 설명을 듣고 선거의 4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투표 결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14개의 전시가 어린이들에게 고르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1위 《바람의 나라》와 2위 《우리 몸은 어떻게?》, 6위 《도전! 어린이 건축가》는 모두 2층(총 4개의 전시가 분포됨)에 있는 전시로 대표적인 체험형(Hands-On) 전시이다. 어린이들은 2층의 다양한 주제 전시를 자기주도적으로 전시물과 오감을 활용한 상호작용 통해 체험할 수 있다. 한편 1위부터 6위까지 중 3층은 《컬러풀 정글》만이 5위에 자리매김했다. 3층의 경우 《컬러풀 정글》을 제외한 나머지 전시는 개관 이후 13년째 바뀌지 않았는데, 이 점을 주요자인 어린이들이 매의 눈으로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올해 3층 전시장의 일부가 새롭게 개편될 계획인 만큼 내년엔 다른 투표 결과를 기대해 본다.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채지호 에듀케이터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연령 중 만 7세부터 10세의 어린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어린이들은 기표소에서 긴 시간을 머무르며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며, 투표소

에 방문하고도 다시 후보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시실 탐색에 나섰다. 모든 전시를 확인하겠다는 진지한 태도와 의지에 참여자들의 부모님들께서 놀라기도 했다. 또한 모든 어린이가 비밀투표의 원칙에 따라 그 누구에게도 투표의 결과를 말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행사를 마친 후, 송문희 관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어린이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자리가 됐다. 어린이들의 솔직한 의견과 선호를 알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며, 추후 3층 전시 리모델링 때 투표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道 경계선지능 학생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금) 道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인규 의원은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리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학습부진 학생의 유형은 크게 △학습형 △놀이형 △도래형 △심리적장애형 △인지적장애형 △무지향형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경계선지능 학생은 ‘인지적장애형’에 해당하며, 인지적 장애에 집중하여 제정한 조리가 바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

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디지털 사진 촬영교육' 실시... 직원 역량 강화로 양질의 의정홍보 서비스 제공할 것!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70명 대상 교육 진행



경기도의회가 보도용 의정활동 사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진 촬영교육'을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특히, 직원들은 교육시간 중 1인당 1대의 DSLR 카메라를 실습용으로 제공받아 카메라의 세부 기능과 조리개와 셔터 활용에 따른 사진의 변화 등을 그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했다. 조 대표는 의정활동 사진 촬영 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의원이 발언이나 건의할 때의 모습을 포착해 역동적으로 담아내고, 화면 밝기 조절, 크로핑 등을 조치하고 신속하게 배포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직원들은 화면에 게시된 다양한 예시용 사진을 보며 '크로핑(cropping: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기법)' 등의 적용 사례를 파악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임시회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이 향후 지속 진행되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교육을 계획하고 주관한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사진은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이자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의회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경기도민께 양질의 의정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끝으로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실용 사진 촬영방법이 강연됐다. 조 대표는 초점 및 노출, 플래시, 타이머 등 일반기능 활용법을 설명한 뒤, 화면 비율을 조정하고 수평을 맞춰 양질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촬영한 결과물을 공유했다.



# 이천시, 2024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실시

## “사회적경제 창업, 나도 할 수 있어”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창업멘토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들 및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을 꿈꾸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과정이 실시된다.

기초과정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3시간씩 4회과정(총 12시간)으로 운영된다.

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3시간씩 8회 과정(총 24시간)으로 운영된다. 기초과정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나의 창업 아이디어를 고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심화과정은 창업 아이디어를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사업계획을 실제 수립하며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기초 및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실제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면 맞춤형 멘토링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각 팀별로 4회씩 받을 수 있다. 이 과정

에서는 각 팀의 특성에 맞는 멘토를 연계해주어 관심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로드맵 설계부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예비 창업자들이 다각면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이천시 홈페이지 이천소식'알림사항'공지사항에서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 “악성민원으로 고통받은 공직자들, 수원시가 보호하겠다”

## 민원 응대하는 젊은 공직자들과 대화

이재준 수원시장이 “악성민원으로 고통받은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젊은 공직자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원응대 공직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만남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는 젊은 공직자 10명이 참석했다.

한 직원은 “민원인이 제 눈앞에서 자해한 적도 있다”며 “악성민원을 담당자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전화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재준 시장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이 있으면 경험이 많은 선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며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팀 신설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악성민원 대처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베테랑 팀장의 중재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이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또 피해직원에게 법률상담비를 지원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공직자들이 악성민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공직자 공직임문과정에 민원응대 교육을 추가하고, 신규공직자와 선배공직자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금은모래 작은미술관 'READY, SET, ART! : 라운드 더그라운드' 개최

## 금은모래 작은미술관 4월 기획전시 미디어아트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금은모래 작은미술관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기한 미디어아트 전시 '라운드 더그라운드'를 개최한다.

금은모래 작은미술관은 여주의 유희공간을 전시.아카이브.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미술 기반을 성장시키고 미술 분야를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10월에 개관했다. '라운드 더그라운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이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작은미술

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국비 5,000만원(최대 3년간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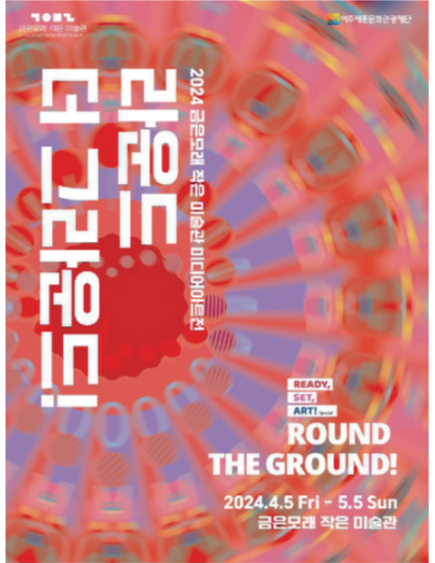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여주를 상징하는 도자기를 테마로 하는 미디어아트 전시로, 도자의 형태와 문양에 대한 변화를 착시효과와 일종의 조예트로프 원리와 접목하여 선보인다. 관람객이 직접 조예트로프 효과를 감상할 수 있는 키네틱 아트도 진행하며, 조예트로프가 생소한 관람객을 위한 '조예트로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조민서 작가는 어지럽게 회전하는 리듬체조에서 변화와 반복의 공존을

발견하고, 여기서 출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알록달록한 그림들과 함께 도자의 형태와 문양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디자이너 박해인과 함께 해 전시공간 전체가 거대한 작품인 듯한 구성으로, 전시를 관람하는 어린이들이 작품을 직접 느끼며 예술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변화와 반복의 세상 속에 빠져보시기 바란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 금은모래 작은미술관을 통해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오르:빛 워터파크고다' 운영 대상지 선정

## 화성시, '오르:빛 워터파크고다' 운영 대상지 경기도 공모 선정돼...화성루나빛축제와 함께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는 경기도 내 시군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지역 연계 문화기술 콘텐츠 공모에서 '오르:빛 워터파크고다' 운영 대상지로 동탄호수공원 운담원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오르:빛'은 orbit(천체의 궤도를 돌다)와 빛의 합성어로, '오르:빛 워터파크고다'는 빛을 활용해 경기도 지역 곳곳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체험형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이다. 사업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다.

전시는 옛 경기도청사 구관 지붕이 배 모양인 점에서 착안해 '이곳의 지형이 물의 흐름을 보여준다 배를 올려놓자'를 모티브 삼아 물을 활용한 전시로 기획됐다.

전시는 상호작용형(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전시로 관객들은 빛과 소리를 지닌 12m의 거대한 물탑과 다양한 크기의 물덩어리가 음악과 함께 선보이는 신비로운 모습을 감상하고, 직접 물덩어리들을 쌓아 올리며 소망을

지원하고 이를 증강현실기술로 공유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개최 예정이며, 화성루나빛축제와 함께 진행돼 더욱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전망이다.

정영근 화성시장은 “화성시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인 '오르:빛 워터파크고다'를 유치하게 돼 기쁘다”며

“본 전시·체험과 함께 진행되는 화성루나빛축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2024

#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 광주시, 2024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광주시는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마다 시행하는 차량 안전 점검으로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강화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시설 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차량 총 30대를 선정해 1차 자체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총 30대의 통학버스에 대해 퇴원면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및 운행 기록장치 설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하도록 유도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청 및 정기 점검 시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대화천 흐르는 고양대로, 고양시 일산서구의 숨은 벚꽃 명소로 적극 홍보

### 개화한 벚꽃 길 영상으로 담아 제작·게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봄철을 맞이하여 관내 벚꽃 명소를 알리는 게시물을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산서구가 홍보하고 있는 벚꽃 명소는 대화천이 지나는 이산포 IC교 방향의 고양대로(대화동 1400번지 일원) 부근이다.

구는 관내 숨겨진 벚꽃 명소를 발견한 뒤, 약 보름간의 개화 과정을 영상으

로 담아 제작했다. 이색적이고 독특한 벚꽃 명소를 담은 영상은 기대 이상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가까우면서도 남들은 모르는 이색적인 관내 벚꽃 명소에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해주시는 것 같다. 앞으로도 숨겨진 명소를 많이 발굴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 용인특례시, 반도체 생태계 확장 위해 ASTC 유치에 나선다

### 최고 반도체 생태계 완성에 한국반도체기술센터(ASTC) 꼭 필요...연구 개발, 실증, 생산 아우를 반도체 생태계 형성



정부가 반도체 산업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ASTC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ASTC는 팹리스(설계)와 파운드리, 소자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 우수 인재 양성, 글로벌 협

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 센터를 민관합동으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벨기에 루벤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연구기관 '아이멕(IMEC, 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을 모델로 AST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IMEC은 7개국에 연구소를 운영 중인 비영리기관으로, 세계 96

개국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반도체 산업의 최첨단 공정을 연구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면 ASTC의 용인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반도체 관련 여러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용인특례시가 최고의 미니팹(테스트베드)까지 하고 있는 만큼 ASTC 입지로도 최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NAI)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에 ASTC가 들어서면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부터 설계, 시제품 실증과 대량 생산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에 시는 이 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의 산·학·관 전문가와 반도체 설계·소재·부품·장비, 패키징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인특례시 ASTC 추진단'을 구성해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일 생활권 내에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여개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 연구기관과 테스트베드까지 들어서면 만큼 반도체 인재들이 반도체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의 반도체 산업에만 502조원의 대규모 민간투자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우량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시설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 정주 여건 확대, 교통인프라 확충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벽하게 작동할 환경을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설계기업과 소재·부품·장비기업 150여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약 50여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기흥구에 조성 중인 '플랫폼시티'에는 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다수의 팹리스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자하는 기흥 캠퍼스엔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가 조성된다. 용인테크노밸리나 원삼, 완창, 통삼, 지곡, 능서 등 용인 곳곳에 포진한 일산산업단지에도 첨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속속 입주해 반도체 생태계를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시는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계획된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이 가동되고, ASTC가 용인에 설립되면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의 시너지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ASTC의 연구·개발 성과가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넘어와 생산한 시제품을 '미니팹'에서 검증하고, 검증된 시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선순환 체계가 용인에 잘 갖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용인이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정주 여건과 교통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용인의 강점으로 꼽힌다.

치연구 이동을 천리와 목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약 228만㎡(69만평)에 1만 6000가구를 수용할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새로 조성되며, UNIST, 경희대, 명지대 등에서 이미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다. 시는 또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확장과 국가철도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을 통해 시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특히 미국 상무부가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와 한국 ASTC와의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양사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용인에 ASTC를 설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STC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와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은 경기 남부의 평택과 화성, 이천, 안성, 성남, 수원을 아우르는 반도체 벨트의 중심도시로 ASTC가 들어설 최적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설계 기업, 이들 기업의 제품을 실증할 미니팹(테스트베드)까지 들어서게 될 용인특례시에 ASTC가 들어오면 반도체 연구부터 실증, 생산 등이 하나의 생태계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502조원이란 초대형 규모의 투자로 조성하는 용인의 3대 반도체 클러스터(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미래연구단지)가 ASTC와 함께 가동되면 첨단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반해서 반도체 칩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게 된다"며 "이렇게 돼야 우리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반도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 감개무량 영주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 싶어진다

출처: 최순우 저자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중



영주 부석사

# 전남도, 다양한 생물·산림 가치 배우는 숲 해설로 힐링하세요

## 완도수목원, 연령대별 맞춤형 제공·생태 공예 체험 등 다채

국내 최대·유일 난대수목원인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이 차별화된 산림교육 서비스를 위해 12월 초까지 숲 해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 해설 프로그램은 숲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숲해설가와 함께 완도수목원을 거닐며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난대수종과 꽃, 곤충 등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산림 체험 제공을 위해 유아·청소년·성인 등 대상별로 특색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이 월별로 진행된다. 또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뭇가지, 열매 등 숲 부산물을 이용해 나만의 공예품을 만드는 생태공예체험(유료)도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사전 예약으로 이뤄



진다. 다만 산림 체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소규모 성인 해설의 경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완도자연휴양림에서도 난대림 체류



형 산림 체험을 위해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숲 해설이 진행된다. 상왕산, 관음사지, 황장사바위 등 휴양림 주변 산과 유적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나 이용객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면 완도수목원장은 "산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숲을 이해하고 자연을 즐기도록 다양한 산림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숲 해설과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 강진군, 초대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개장식 열어

## 첫날 오전부터 전국 각지 관광객 북새

강진군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의 화려한 개장식이 지난 6일, 남미륵사 행사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 남미륵사 법흥 주지 스님,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이병식 강진교육장, 김금수 군동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커팅식 이후에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풍선날리기 행사로 축제장 일대는 200여 개의 풍선이 하늘을 수놓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탐방로를 둘러보며, 이제 막 개화를 시작한 서부해당화의 핑크빛 숲길을 걸었다.

축제 첫날임에도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며, 임시주차장까지 일찌감치 만차가 됐지만, 추가로 도로변 가장자리로 질서정연하게 주차 안내가 이뤄지며 우려했던 주차난은 발생하지 않았다.

축제장으로 들어선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꽃샘매경에 빠져, 가족, 친구 등 일행들과 함께 인생샷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봄꽃 힐링 카페테리아'에서 핑크빛 정원을 풍경 삼아 차 한잔의 여유를 갖기도 했다.

축제가 열리는 남미륵사는 서부해당화와 함께 한달 후엔 만개할 1만 그루의 철쭉의 장관은 물론, 동양 최대 규모의 황동 아미타불 불상, 500 나한상 등 사찰의 아름다움으로 해마다 2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이미 관광객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증명해 왔다.

추윤호/기자



#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첫걸음 내딛다

##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총회 개최

전남 함평군은 지난 3일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가 함평천지종합복지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 설립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힘찬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사 선서, 협회 소개 및 경과보고, 깃발 수여식, 내빈 축사, 협회 임원 소개 순서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협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조사 연구사업과 교육훈련사업, 출판홍보사업, 권익옹호사업 등 다양한 활동

을 펼칠 예정이다.

심문식 초대회장은 "우리는 윤리실천과 정진하는 자세로 복지함평을 만들는데 앞장설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사협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축사를 통해 "함평군 사회복지사협회 창립을 축하드리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대될 바라며, 사회복지사의 복리증진과 '함께 만드는 복지 함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나주시, 수도권 투자유치 행사 이어 '글로벌혁신특구' 포럼 개최

## '중압직류 배전(MVDC)' 주제로 강연, 토론... 에너지 기업 유치 도모



나주시가 지난 3일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행사에 이어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 글로벌혁신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며 기업,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나주시는 4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에너지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에너지산업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한 중압직류 배전(MVDC) 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국제 표준

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특구로 선정됐으며 차세대 전력시스템 중 하나인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류산업의 실증, 인증 등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을 마련해 국내 기자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다.

전남 에너지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총사업비 1002억원(국비250·지방비415·민간337)이 투입된다.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상용화의 글로벌 거점 도약을 목표로 핵심지구와 연

계지구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에너지 산·학·연이 집적화된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직류기반 전력망 실증을 위한 상용시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은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기조강연, 전문가 4인의 주제 발표와 문체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김동욱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하는 6인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중압직류 배전(MVDC)은 기존 발전소에서 전력변환을 거쳐 수송가까지 AC(교류)로 송배전하던 것을 중간 전력변환소를 거치지 않고 DC(직류)로 변환해 송배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기존 교류(AC) 전력 계통망 포화, 계통접속 지연, 출력제한 등의 문제점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도심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 추세를 해소해 줄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포럼 기조 강연은 김병국 나주시 에너지육성팀장의 '글로벌 혁신특구 취지 및 혜택', 이규섭 서울대 교수의 'MVDC기술의 중요성과 국내 현

황', 정홍주(주)효성 HVDC팀장의 'MVDC 컨버터스테이션 개발현황', 유도경(주)그린이엔에스 대표의 'MVDC 산업과 전남 에너지기업의 준비', 김강식 한전 신기술연구소장의 'MVDC 사업화 추진현황'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차세대 전력망 기술 MVDC'를 주제로 기술적인 중요성과 국내 적용 효과, 컨버터 스테이션 기술 개발 등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또 직류부하 증가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MVDC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산·학·연·공 연계 발전방안도 논의됐으며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MVDC 관련 질의응답도 활발히 오고갔다.

포럼에 참석한 나상인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에너지밸리 기업들의 미래 전력 기술 분야의 기술·제품 개발 촉진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구를 통해 나주가 세계적인 에너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완도군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 슬로걷기 축제 팡파르

## 청산완도, 범바위(氣) 치유, 별별 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지난 6일 개막했다.

축제 개막에 맞춰 청산도는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어 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개막식은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청산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느림의 중' 타종식, 클래식 공연,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 가자' 등이 진행됐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치유와 힐링, 느리게 걷기를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완보'는 슬로길 11코스를 모두 걷고 스탬프를 찍으면 주말에는 선착순으로 20명에게 전복을 제공하며, 4코스 이상을 걸어도 청산도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청정바다에서 나는 완도 전복은 원기회복에 도움이 돼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데 4월 13일과 20일에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완도소안수협 청산시장 일원에서 '전복 시식회'가 열린다.

강한 자성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 불리는 청산도 보석산 범바위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기(氣) 치유', 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청산도를 돌며 야경을 감상하는 '별별 버스', 은하수 사진 촬영 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이 빛나는 청산도' 등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친환경 봉투에 슬로길의 스레기를 담으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출렁 쉼터', 팡이(슬로걷기 축제 캐릭터)를 만나 게임에서 이기면 경품을 제공하는 '팡이를 이겨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완도군청 관광과 또는 축제 현장에 위치한 주민관광청(청산로46 복지회관 앞)으로 하면 된다.

군에서는 4월 한 달간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평일)해주고,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가 세계가 인정하는 슬로시티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면서 청산도와 슬로시티의 의미를 강조하고, 덧붙여 "이번 축제의 주제처럼 여유롭게 슬로길을 걸으며 바쁜 일상 속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 진도군,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함께 피부과 무료 진료 실시

## 무좀, 습진, 만성피부염,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 상담 함께 진행

진도군이 최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 진료를 실시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군은 한센병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한 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센병은 조기 적절한 치료를 받

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를 남길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전염의 우려가 없고 완치될 때까지 무료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무료 진료에는 무좀, 습진, 만성피부염, 가려움증 등 관내 주

민의 피부질환 상담과 눈높이에 맞춘 검진을 함께 진행해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한센병과 피부질환은 조기 발견으로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부과 무료 진료 실시로 지역 주민의 의료격차 해소에 힘쓰고 건



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전북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실행계획 돌입

## 김관영 도지사, “성공개최 통해 전북 역량 높이도록 함께 노력하자”

전북자치도 추진위원회 회의 개요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와 김인태 전주부시장, 대회 개최장소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행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자치도 기본계획과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점검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전주시, 관계 부서, 출연기관 등과 총 20여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기업 전시관 구축, 도내 참여기업 발굴, 자체 프로그램 구성, 문화, 공연프로그램 및 투어프로그램, 자원봉사사 교통, 안전과 의료, 환경과 위생관리 등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왔다.

먼저, 기업 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설치되며, 300부스 규모의 기업 전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임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시 건축물은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기업 전시 공간은 전기, 통신, 공조 등을 설비해 실내 전시장과 다름없는 공간으로 구성해 참가기업과 참관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해외동포청에서 발굴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참여기업을 연계하고, 향후 참여하는 전국 각 지자체의 우수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연계 행사’ 도는 대회 기간 동안(10월 22일~24일)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회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어, 당일 및 1박2일 선택형 전북 관광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대회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을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도 열린다. 도립국악원과 문화관광재단,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퓨전국악 공연, B-Boy 공연, 노상놀이 통합퍼레이드 등이 한옥마을과 대회장인 전북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사 관리’ 이 밖에도 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대회 전반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셔틀버스(주요역-터미널, 호텔-행사장) 및 순환버스(행사장 내부)를 운행해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대회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상황실이 설치되며, 의료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방역과 위생·환경 체계를 구축해 각종 상황에 대한 예방조치와 실시간 대응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도내 숙박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며, 향후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호텔 뿐만 아니라 한옥 스테이 등 다양한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추진위원회 주요 발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참가자들이 단 하나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성과를 거두는 대회 개최를 통해 전북의 역량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인태 전주부시장은 “전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전주로 초대하는 만

남, 전주의 매력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학생들에게도 전세계의 한인 경제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대회가 전북대에서 열리는 만큼 적극 협력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리게 되며, 국내외 해외동포 기업인 등 4,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 세계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로 치러지게 된다.

이남출/기자

# 광주광역시남구, 세월호 10주기 ‘리멤버 20140416’

## 구청에 추모공간 마련 16일까지 운영



“세월호에 대한 기억의 조각이 10년째 쌓이는데 이것은 국민들께서 세월호와 같은 제2의 참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묻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남구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 304인을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에 대해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8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지역사회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밤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가 연달아 펼쳐진다.

먼저 남구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1층에 분향소를 포함해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추모 공간은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담기 위해 희생자 304인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과 그동안 관내 지역사회에서 진행돼 온 추모행사 사진 등이 전시된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아픔을 온전히 기억하고, 국가적 재난 사고의 기록 보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되돌아보기 위해서다.

분향소는 꽃다운 청춘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구청 공직자들도 일제히 ‘리멤버 20140416’ 추모에 나선다.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1층 로비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가슴에 품으며 헌화에 나선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추모사 및 추모시 낭독을 통해 그리움의 크기만큼 생명 존중의 세상을 열어야 할 것임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주월동 빅스포 뒤 푸른길 광장에서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를 개최한다.

관내 청소년과 주민 등 200명 가량이 참석하며, 추모 공연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국가적 안전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이며, 온 국민이 끝까지 함께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며 “4월의 봄에 다시 희생자의 이름을 되뇌며 그날의 슬픔과 기억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남원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업제안 가능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개편

## 주민 일상생활을 위한 20억원, 의견수렴 창구 다각화

남원시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대폭 개편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선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제도이다.

남원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로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다보니 주민 참여가 어렵고,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소규모 시설사업 위주로 제안되는 한계가 있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이 쉽게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행한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

전문 교육기관에서 4.9부터 5.28일까지 읍면동에서 직접 찾아가 시민이 알기 쉽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작성하고 발굴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발굴된 제안사업은 새롭게 구성된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시민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게 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의견수렴 창구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시민제안에 이어 청년공동체 조직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의 주인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인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예향의 도시 목포에서 배우의 꿈을 펼치세요!”

##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전남도민 대상으로 100명 모집

목포시와 전남영상위원회가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배우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배우’사업은 지역의 보조출연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영상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배우로 선발된 대상자들에게는 전문 프로필 촬영 및 전라남도에서 촬영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조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 프로필 촬영’교육 과정에서는 전문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와 사진작가가 함께해,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천)과 서부권(목포)으로 나눠 각 50명씩 교육한다.

목포 교육장소는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전남배우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향후 보조출연자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개인 프로필 촬영’교육 과정에서는 전문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와 사진작가가 함께해,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배우는 전남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기 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전남영상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면 되고, 교육 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영상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영상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예향의 도시 목포에서 멋진 배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보성군, 보성읍 복지기동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구슬땀

## 취약 가구 환경정비, 간이화장실 설치 작업 실시



보성군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보성읍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보성읍 복지기동대와 희망드림협의회, 자원봉사자, 보성군 119생활안전순찰대, 마을 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총동원됐다.

봉사자들은 힘을 합쳐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도배, 장판 교체, 간이화장실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주택 내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보성읍 복지기동대 임영서 대장은 “오늘 참여해 주신 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성 보성읍장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봉사해주신 기동대원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보성읍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읍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등 교체, 도배·장판 교체, 청소활동을 수행하는 등 매년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최원영/기자

# 경북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전국 최다 선정!

### 2023년 말 근해채낚기 긴급 추가감척 13척, 올해는 근해어선 30척 진행 지속적인 수산자원회복, 어업경쟁력 개선과 어업경쟁력 선도적 확보

####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경쟁력 확보 위해 감척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혀

경북도는 올해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근해어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근해어선 43척에 대해 감척 사업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선정한 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총 30척으로, 감척 대상자 20척, 예비 대상자 10척이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 여부, 선령, 톤수, 조업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경북도 감척 대상 어선은 근해채낚기 25척, 근해통발 3척, 근해자망 2척 등 총 30척으로 전국 감척 계획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 정책으로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오징어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근해채낚기 어업에 대한 긴급 추가 감척을 진행했다.

우리 도는 예비 대상자 포함 전국 15척 감척 계획 중 대상자 10척, 예비 3척으로 13척을 확보해 감척 사업을 진

행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어획 강도가 높고, 순이익률이 낮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하며,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을 감척한다.

지난해 근해채낚기 추가 감척과 올해 근해어선 감척 사업에는 국비 6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감척 대상자는 폐업지원금인 평년 수익액 3년 분과 어선·어구 잔존가치를 평가해 매입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선원들은 선정일 기준 소급 1년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경북도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척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 4월 중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 예정 염색산업단지 악취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악취TF 운영, 염색산업단지 일원 악취실태조사 실시 등 악취저감에 총력

대구광역시는 서구지역 도심 개발에 따라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염색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염색산업단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 대기개선 시책을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7% 정도의 저감 성과를 거뒀으나,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는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며, 지난 '20년도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업단지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업단지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23년 9월부터는 신규입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악취관리에 대한 강화대책 마련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시는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구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4월 중에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공고를 실시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악취배출기준을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해 악취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영향평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희태/기자

# 부산시, '사상 숲체험교육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부산시는 '사상 숲체험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종 당선작으로 (주)라라호호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8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참여한 18개 업체의 설계안 중 숲체험 교육관의 특수성·활용성, 목조건축의 우수성·상징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라라호호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권을 받게 된다.

'사상 숲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상공원에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숲교육·목재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2023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에 선정돼 총 130억 원(국비 65억 원, 시비 65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당선작은 '도심 속 자연을 만나는 숲체험공간'을 기본 방향으로 다채로운 기법을 활용한 실내·외 숲체험교육공간을 계획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이 숲·목재 문화를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체험공간을 역동적으로(다이나믹하게) 구성했다.

또한, 건축물 자체가 전시와 체험 공간



간이 되는 중목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목조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비 25억 원을 별도로 확보해 오감체험숲, 숲속탐방로, 숲체험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유아체험숲을 숲체험교육관과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사상 숲체험교육관이 탄소중립 실현 가치를 배우며 숲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도심형 거점 숲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응답하라 내 인생」 치매예방교실 호응!

청송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달 13일(수)부터 오는 6월 5일(수)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 「응답하라 내 인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예방교실 「응답하라 내 인생」은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 가능성을 낮추거나 지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 1회 2시간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수업은 크게 '나의 어린시절', '결혼 이야기', '나의 아이들', '50대 내마음의 풍경화 그리기, 그리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 '나의 인생 총정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 기억을 회상하여 미니 자서전을 만들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옛 기억

을 꺼내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니 일상에 활력을 느끼고 우울한 마음도 없어진다."며 "이러한 수업을 매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배움에 대한 성취감 및 사회적·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인지강화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응답하라 내 인생」이라는 치매예방교실 수업을 통해 단순로운 생활을 보다 건강하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터미널 운영개선방안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오도창 영양군수, "터미널 문제점을 밝히고 공영화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도출, 영양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영양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인구 감소 및 노선 축소,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열악해진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안정성을 제시할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개선방안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착수해 올해 3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주)도시경영연구원은 영양시외버스터미널의 환경분석, 공영화의 타당성, 터미널 복합화 기본구상, 연계사업 검토, 토지매입·수용 절차 등으로 나누어 운영 대책

을 다양하게 검토 및 분석했다.

고령 인구의 주요 이동 수단인 버스 운영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양군은 기존 터미널 공공매입, 상업시설, 공공업무 시설을 포함한 터미널 복합화 등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양군민이 불편함이 없고 또 한 지역주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영양 시외버스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의 문제점을 밝히고 공영화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영양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상주시, 대학생 상주관광 홍보 팸투어 시행

### 벚꽃 명소와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을 통한 상주 관광 홍보

상주시는 지난 6일, 대구권 대학생 20여 명을 초청하여 '벚꽃과 함께하는 상주 자전거 한바퀴'를 주제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자전거 여행을 테마로 벚꽃 명소와 관광지를 방문하고,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하는 '경북e누리 관광상품' 등 상주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상주역에 위치한 무료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공공자전거를 이용해 관내 벚꽃 명소를 여행하고 국내 유일 자전거박물관을 관람하며 자전거 여행 명소로서의 일정을 수행했다.

또한, 경전대 관광지 내 밀리터리 테마파크 서바이벌 체험을 비롯하여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내 카드와 하늘

자전거, 수상버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상주시의 여러 관광자원의 매력을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냈다.

한편, '경북e누리 관광상품'은 상주시의 관광지 및 체험시설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11번가, 옥성, 경북여행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경전선 일원에서 운영되는 상주시 수상버스는 다가오는 5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신기승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명실상부 자전거 도시라는 기존의 상주시 이미지와 함께 벚꽃 명소와 관광지를 알릴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그 외의 상주시 관광자원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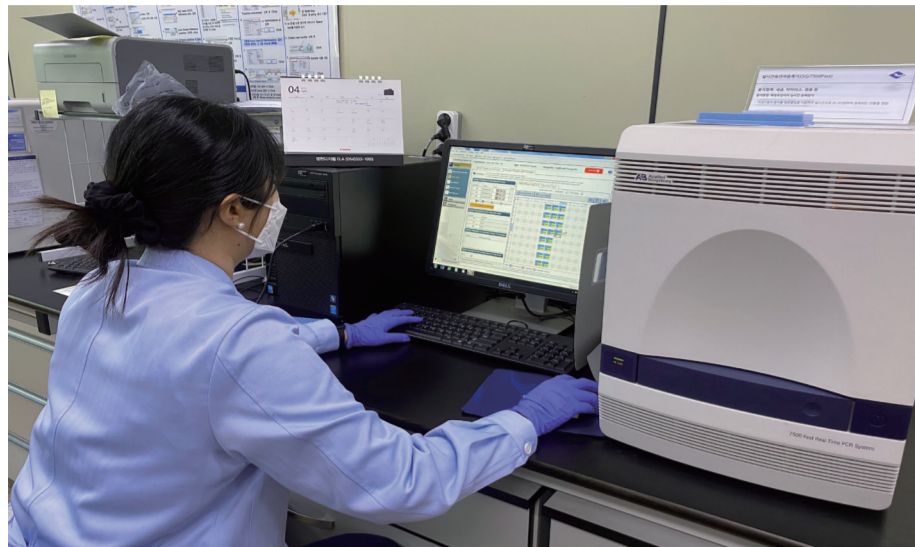


윤근수/기자



# 작지만 무서운 불청객 모기, 일본뇌염 감시사업 시행

## 3. 30. 전국 첫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 2회 매개모기 채집 및 분류·동정 시작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해충 번식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출현 시기와 발생 추세 정보를 파악하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이번 달부터 10월 말까지 추진한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은 영천시에 있는 축사 내에 유문등을 설치해 매주 2회 모기를 채집, 모기 종류별 개체 수를 확인하고 병원체 유전자 검출 검사로 일본뇌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조사한다. 지난해 경북도가 채집한 모기 중 빛숨모기가 33%로 우세했으며, 중국 열륙날개모기가 31%, 빨간집모기가 22%, 작은빨간집모기가 12%의 분포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전라남도 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자 지난달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게 물려전파된다.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 20~30%는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매개모기 감염병 감시사업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도민 건강 보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2024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용자 신청·접수받아

박원국 봉화군수,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주민 소득 기반 마련, 고부가가치 창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용자 희망 주민 빠짐없이 신청을 해 줄 것" 당부

봉화군이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용자 지원 신청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주민들의 소득 사업 분야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가구마다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확정한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연 2%, 용자 한도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다. 오는 5월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원국 봉화군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용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한명도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일/기자



# 하회마을 전통 불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 시연

## 하회야연(河回夜宴), 근심 걱정 잊고 마음으로 즐기는 불의 향연 하회의 고요한 밤,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불놀이

안동시는 올해도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전통 불놀이인 '하회선유줄불놀이'를 정기 시연한다고 밝혔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일환으로 안동시 주최, 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하회마을보존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시연은 ▲5. 5.(일) ▲6. 1.(토) ▲7. 6.(토) ▲8. 3.(토) ▲11. 2.(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5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만송정 숲과 부용대 일원에서 진행된다. 시연은 만송정 숲에서 부용대 절벽까지 낙동강을 가로질러 새끼줄을 연결하고 솟봉지를 매달아 불을 붙이며 시작

된다. 솟봉지가 타오르며 불티를 떨어뜨리는 '줄불', 뱃놀이를 즐기며 시조를 읊는 '선유', 달걀 껍데기 속에 기름떡인 숨을 넣고 불을 붙여 강물에 띄워 보내는 '연화', 말린 솔가지 묶음에 불을 붙여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낙화'가 어우러져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불놀이를 즐길 수 있다. 시연 주제는 '하회야연(河回夜宴)'이다. 중국 당(唐)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천지는 만물이 잠시 쉬었다 가는 여관이요, 세월은 영원한 나그네다'라는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에서 착안해, 근

심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이 순간의 자연과 풍류를 함께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장소인 하회마을은 입장 시 소정의 입장료가 발생하며 인파 밀집 및 교통량 급증 시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지정체 해소를 위해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행사 당일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경북도청과 하회마을을 잇는 임시 순환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귀한 손님을 모시고 불놀이를 즐기는 큰 잔치를 준비했다. 고요함 속 불의 향연이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무쪼록 안전에 유의하면서 바쁜 일상 속 지친 마음을 달래고 안동의 다채로운 매력을 즐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지진에도 버티다', 영주시, 시민에 '안전청사' 제공

내진성능 확보 필요 행정복지센터 6개소, 보강공사 완료

경북 영주시는 지진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6개소(이산면, 문수면, 장수면, 순흥면, 부석면, 영주1동)의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이후 도내에서만 2차례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발생 증가세에 대처하기 위해 '지진·화재재해 대책법'에 따라 이번 공사를 추진했다. 앞서 시는 공공기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시청사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이듬해 실시한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가 필요한 행정복지센터 6개소를 선정했다. 지난해 3월 착공해 지난달까지 6개 청사 내진 보강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에는 2022년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시비 14억 원이 투입됐다. 이로써 영주시청사와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신속 예정 4개소(단산면, 휴전1동, 봉현면, 가흥2동)를 제외한 15개 청사 모두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들이 한층 안전이 강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게 됐다"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청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지진·화재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금자/기자



# 예천군-국토안전관리원 노후 시설물(교량) 안전점검 실시

## '레드·체크 안전신호등'을 활용한 전국 최초 시범사업



예천군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함께 관내 노후 시설물(교량) 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실시한다. 예천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해 10월 19일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확보와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호 협력

중이며 이번 노후 시설물(교량) 점검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노후 시설물(교량) 안전 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첨단기술에 기반한 '레드·체크 안전신호등'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 적용한다. '레드·체크 안전신호등'은 '레이저 스캐너, 드론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관리 검사체계로, 레이저 스캐너와

드론을 활용해 시설물 변위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허용변위 안전신호등 등급'과 지자체 관리자 눈높이에서 육안 조사가 가능한 '체크리스트 안전신호등 등급'을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쉽게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체계 도입 및 시범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자체 점검을 통해 안

전 등급이 적색인 시설물은 3중으로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레드·체크 안전신호등' 안전관리체계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예천군에 전국 최초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예천군은 향후에도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노후 시설물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선일/기자

# '부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복지사업 어르신 생신 축하해효(孝) 추진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 생신을 함께 축하해 드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이어온 찾아가는 복지사업이며, 부곡동 송스베이커

리(대표 송용규)에서 후원을 통해 지원 받은 생일 케이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련한 이불 선물 보따리를 어르신께 전달하며 기념일을 축하드리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일 자녀 역할을 한다. 축하를 받은 어르신들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평생 생일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방문해 주니 고맙고 생일날 너무 기쁘다"라며, "이런 좋은 일을 해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후원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 신한울2호기, 상업운전 돌입

##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 전력 생산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 황주호 한수원 사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한울2호기를 운영하겠다" 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2호기(140만kW급)가 7개월간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신한울2호기는 지난해 9월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연료를 장전하였고 이후, 단계별 출력상승시험과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의 성능시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용전검사 최종 합격증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개시 신고

등을 거쳐 4월5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한울2호기를 운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국내 28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2호기의 상업운전으로 국내 운영중인 원전은 모두 26기(계속운전 준비중인 고리2호기 포함)가 됐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24년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접수



의성군이 2024년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IP(Intellectual Property) 바로지원 사업 대상자를 5월 17일(금)까지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IP 바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가진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IP 경영진단과 포장·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로드맵 등 맞춤형 사업을 기업당 2건 이내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군은 최근 3년간 지식재산창출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21개 업체에 총 206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허청 사업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더해 총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은 안동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가 대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식재산창출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포장재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IP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안동상공회의소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054-859-3093)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금자/기자



# 서울시, '오세훈표 온기창고' 쪽방주민 필요한 물품 주문해 이용 만족도 높인다

### 쪽방 주민 사전 수요조사 바탕으로 후원사에 필요 물품 요청하는 수요자 맞춤형 후원방식

돈의동 쪽방촌에 위치한 온기창고 2호점에 정기후원자가 생겼다. 후원 물품은 쪽방주민이 필요한 물건을 요청하면 그 종류의 상품을 가져다 놓는 '수요자 맞춤형 후원' 방식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자주 찾는 상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행복도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표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는 서울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대표 사업으로 쪽방촌 주민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지고 가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지난해 8월 서울역 쪽방촌 1호점 개소에 이어 11월 돈의동 쪽방촌에 2호점이 개소했으며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쪽방 주민들의 필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매달 500만 원 상당의 자체 제작(PB) 상품을 온기창고 2호점에 정기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호점은 현재 유통기업인 세븐일레븐에서 정기후원중이다.

후원 물품은 쪽방촌 주민들의 사전 수요 조사와 생활필수품 등을 바탕으로 온기창고 2호점을 운영하는 돈의동 쪽방상담소가 직접 후원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상황이나 계절별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물품을 중심으로 입고 후 나눠줄 수 있어 사업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품 배분 외에도 쪽방촌 주민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온기창고에



서 근무 중인 쪽방주민을 선발해 '이마트 노브랜드 마켓'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발굴해 실질적 자립과 지역 복귀를 돕는다. 한편 온기창고 1,2호점에서는 식목일을 맞아 4~5일 양일간 장바구니를 가지고 온기창고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화장지 1개를 제공하는 '친환경 및 온기나눔' 캠페인도 실시한다. 4일 온기창고 2호점(돈의동), 5일 온기창고 1호점(서울역)에서 진행된다.

캠페인은 온기창고가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하는 녹색소비자('그린슈머', green+consumer)이자 소외된 이웃과 함께 온기(물품)를 나누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기창고에

등록되지 않은 쪽방주민을 데리고 방문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화장지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이마트 노브랜드,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은 3일 서울 시청 8층 간담회장'쪽방촌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구본기 이마트 노브랜드 상무이사, 김병윤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온기창고는 쪽방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자존감을 지키고 마음을 살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이다"이라며 "이마트 노브랜드와의 수요맞춤형 후원을 시작으로 온기창고 운영뿐만 아니라 쪽방 주민들의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경산소방서' 함께하는 화재진압전술능력 향상 교육 훈련 실시

경산소방서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화재진압 전술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진압대원 현장대응능력강화 훈련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함께하는 화재진압전술능력 향상 교육 훈련'이라는 주제로 화재 이상현상 주수 및 3D 주수기법, 협소공간, 계단실 등 현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호스전개 방법, 도어엔트리, 인명검색 절차, 구획실 검색 방법 등 팀워크 및 반복숙달이 중요한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신규 소방 구성원 증가에 따라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6월, 하반기 6월 총 연 12일의 훈련 일정으로 경상북도 소방 인력 풀 3~6명으로 구성된 우수한 교관 인

력과 함께 약 120명의 화재진압대원을 대상으로 경산소방서 및 자인119안전센터에서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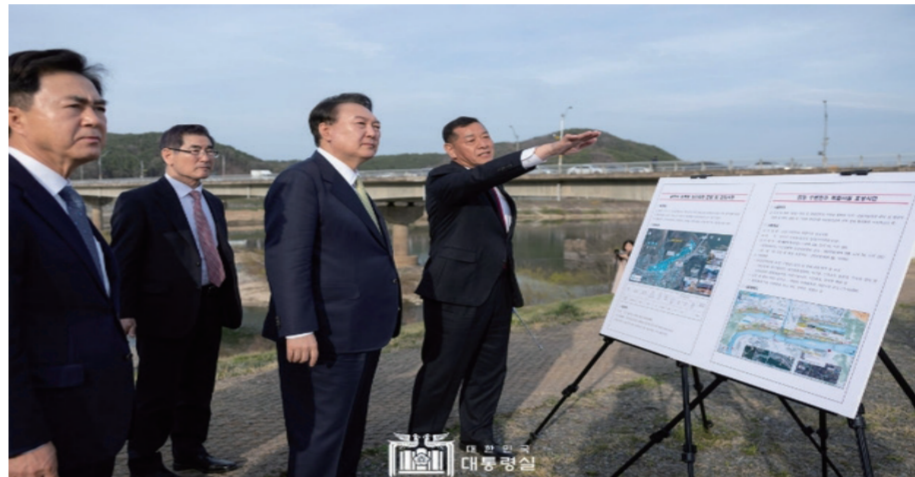
박기형 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

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다"라며 "경산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과 대원 모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광삼/기자



# 尹 대통령, 공주시 수해 현장 찾아 복구 상황 직접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충남 공주시 옥룡동을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공주시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작년 7월 수해 발생 직후 공주시 대학리 일원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옥룡동 침수 피해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최원철 공주시장으로부터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 시장은 작년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 수위가 상승해 저지대인 옥룡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발 방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빗물 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개량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멀리 보이는 모래톱을 가리키며 대청댐 방류시 하천 수위가 상승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준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 하천에 준설할 곳이 많으며 준설도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골목 입구에 모인 옥룡동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곳이)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노력했다고 들었다"며 제대로 회복됐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아버지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큰집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며 "공주는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추억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발전, 충청의 발전, 공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부친의 고향마을인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명재고택과 파평 윤씨 종학당을 찾았다. 명재고택을 찾은 대통령은 정재근 유교문화진흥원장, 윤완식 명재 종손 등과 함께 한담을 나눴습니다. 정 원장이 대통령에게 "유교의 선비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국가 운영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자유가 공존하려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책임과 윤리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며 유교 정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조선시대 파평 윤씨 가문 유생들의 후학 양성 시설인 종학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학업공간, 거주공간, 우물 등을 꼼꼼히 둘러본 후 유교에도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교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시설 관계자에게 물으며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늘 방문에는 지역에서는 김태훈 충남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수해현장), 백성현 논산시장(명재고택 및 종학당)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수행했다.

윤근수/기자

# 통영시, 2024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 점검 실시

###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통영시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회계 처리 적정성,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여부, 급·간식 운영 적정성 및 건강·위생관리 실행, 통학 차량 관리 등 안전 관리 실행,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후 지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준/기자

이유국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번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매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덕양~일산까지 고양시 전역 '민생행보'

### 올해 4번째 현장방문... 덕이지구·지축 등 민생현장 살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일, 올해 네 번째 '핵심공약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 초 "안전·교통·복지 등 시민 밀접사무, 그리고 지역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고, 그 일환으로 3월부터 매주 핵심공약 정책을 추진 중인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3차례의 방문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부지, GTX-A, 원당역세권 등 굵직한 공사·사업지를 점검한 반면, 이날 일정부터는 주거지·보행로 등 생활현장을 찾아 보다 세심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덕이동 쓰레기집하 시설 △지축동 보행로 개선사업 현장 △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현장(일산호

수공원)을 살폈다.

덕이지구 내 쓰레기집하시설의 경우, 민간(도시개발조합)에서 운영하다가 재정난 등으로 약 12년간 방치되면서 대지권 등기가 막히는 등 입주주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고양시는 이 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 법률자문 등 끈질긴 노력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시의회에서 기부채납이 결정되며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기부채납으로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상화의 물꼬도 트게 되어 기쁘다.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불필요한 시설을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보행환경을 새롭게 정비한 지축동 백운길도 점검했다.

시는 올해 백운길 일원 보도블럭을 가로·세로 50cm의 대형 보도블럭으로 교체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노인 등 보행약자에게 '통행장벽'으로 다가왔던 보도와 인도 간 단차도 줄였다.

이는 지난 1월 고양시가 수립한 '보행자 중심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 보도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8개소에 대형 보도블럭과 경계석 턱낮춤 등 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기존 소형 보도블럭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면이 울퉁불퉁해져 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대형 보도블럭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심미적으로도 우수하다"며 "고양시 전역에 '걷기 편한 보행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 일산호수공원도 찾았다.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되며, 20여 일 남은 현재 막바지 준비와 점검이 한창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 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30여 년 역사를 지닌 명실상부한 고양의 대표축제이자, 관람객이 마주하는 고양시의 첫인상"이라며 "방문객들이 행사장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다양한 명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긴밀히 연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은 4월 4일, 12일 두 차례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려!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 강원도민체전·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자원봉사자 15일까지 모집

개·폐회식 지원, 안내, 환경정리 등 220명 모집, 4월 15일까지 접수



양양군 자원봉사센터가 오는 5~6월 중 개최되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 민체육대회' 및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220명을 모집한다.

단, 봉사실적인정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해야 자원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양양군청 및 양양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양양군자원봉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4월 19일 중 최종 선발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사정에 따라 본 기간 외 사전행사 또는 사전경기에 배치될 수 있으며, 개·폐회식장, 경기장 및 경기일정별로 근무장소가 확정되고, 추후 진행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통해 근무수칙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현장에 배치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근무복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아산시, 신정호 수질개선을 위한 '고효율 녹조 복합제거장치' 운영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선정, 시범운영 추진

아산시는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복합제거장치(수상용 2대, 육상용 1대)'를 지난 4일 신정호에 설치하고 8일부터 운영한다.

8일부터 운영하는 녹조복합제거장치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혁신제품 시범운영에 앞서 수질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주(씨엠스코(주)) 부담으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사전 운영이다.

제거하는 '녹조복합제거장치 운영 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상 식재를 및 수중 폐기물 제거, 이상 증식된 연꽃 군락 제거 등의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태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지원 사업' 추진

태백시가족센터는 4월부터 12월까지 다문화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휘력, 표현력 발달과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다문화가족자녀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독서 지도사·책 놀이 지도사·활동가 기초교육 수료자 등의 자격을 소지한 활동가가 다문화가정으로 찾아가 독서 지도, 소리내어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백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마쳤으며, 선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다문화가정 2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을 통해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 구사 능력 및 사회적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 충남도, 지역 대학생 대상 직업 교육훈련 추진

도·대학·일자리 기관, 우수인력 양성 업무협약...시범사업 시작

충남도는 최근 도내 대학, 일자리 관련 기관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 대상 직업 교육훈련을 진행해 도내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내 일자리 기관, 대학과 함께 맞춤형 직업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충북도, 샤인머스켓을 이용한 오렌지 와인 특허 출원

과잉 생산되는 샤인머스켓 수급 조절에 큰 역할 기대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는 과잉 생산되는 샤인머스켓을 이용하여 화이트 와인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1.9배 향상된 오렌지 와인 제조방법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고 5일 밝혔다.

오렌지 와인(Orange wine)은 레드, 화이트, 로제를 이어 '네 번째(4th) 분류의 와인'으로 공식 구분되며,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의 과즙만 추출하여 발효시키는 반면 오렌지 와인은 청포도를 으갠 후 껍질과 씨를 함께 발효시키는 레드 와인 양조 방법을 사용한다.

서 4주 동안 발효 후 껍질을 제거하고 숙성하는 방법으로 기존 단점을 해결했다.

이번에 개발한 샤인머스켓 오렌지 와인의 상품화로 농가 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화/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Hampyeong Nabe Festival' (Hamnyeong Nabe Festival) featuring illustrations of people, butterflies, and food. Text includes dates 2024. 4.26. - 5.6. and location Hamnyeong Expo Park.

# 서울시, 강북권 신성장 거점 개발대상지 5곳 선정... 강북 경제 활성화 이끈다

## 성산로·왕십리·북한산·중랑천·노해로 일대 입체개발 및 리노베이션으로 혁신



서울시는 50여 년간의 베드타운으로 여겨져 온 서울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신속추진 형태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일차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신속추진사업은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서대문구, 30,451㎡),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성동구, 약 3만㎡),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강북구, 15,635㎡),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동대문구, 26,000㎡),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노원구 15,750㎡) 등 5건이다. 이들 사업은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11개의 자치구가 사업을 제안했고 시는 사업 필요성과 부지확보 등 실행 가능성을 비롯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서북·동북권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강북권 자치구와 서북·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섰다. 이후 '서북·동북권 균형발전자문단'을 구성해 신성장 거점선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7일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첫 번째 선정 사업은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이다. 성산로 일대는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해 풍부한

인적자원은 물론 도시철도 서부선 개통에 따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하·지상 공간이 단절되어 있고 상권도 침체해 지역 활력이 저하된 상태다.

시는 이 성산로 일대를 지하와 지상을 입체 복합개발하는 형태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서부선 역사와 지하공간을 연결해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세브란스병원 주변 등은 연구·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산업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킨다.

두 번째는 4개 노선이 지나는 '성동구 왕십리의 입체 도시 조성'이다. 우선 성동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폐쇄하고 상부 고산자로 차선을 늘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든다. 차량 통행을 막은 성동지하차도를 상업·업무 등 복합생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다. 경찰서, 구청 등도 한 곳으로 이전해 왕십리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셋째, 천혜의 자연을 품은 '강북구 북한산 중턱 시민천문대 건립'을 통한 동북권 문화·관광 거점이자 주야간 명소로 조성사업이다.

사업지는 2023년 5월 의무경찰대 이전 후 현재 비어있는 공간으로 주변에 인공조명이 적고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빛이 없어 서울 내에서는 천문대를 건립하기 좋은 위치다.

넷째, 하천과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지역단절로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됐던 중랑천변 동대문구 휘경 유수지 일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복합개발하고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원

조성 등 수변 문화거점을 확대·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수변 거점을 인근 배봉산까지 연계해 완벽한 녹지 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노해로를 총 7차로에서 4차로로 줄여 보행 구간을 확대해 열린 문화광장으로 리노베이션한다. 동북권 주민 누구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유 문화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원구 주변은 금융권, 쇼핑 등 상권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노해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동북권 문화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내 보행 구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광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신속추진사업은 특성에 맞는 전략, 사업성 분석, 개발 계획안, 단계적 실행방안 등이 담긴 사업별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관련 용역을 올해 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이 도출되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4곳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검토발전 전략을 통해 신성장거점으로 추가 발전시키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중랑·청계천 합류부 통합개발, 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 서울풍물시장 일대 통합개발, 홍릉 일대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선 통

합용역을 통한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을 마련한다.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 도출이 가능한 사업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속추진대상으로 변경, 추진할 수도 있다.

(중랑·청계천 합류부 통합개발) 합류부 보행교를 조성, 단절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천변 가이드라인, 거점조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서울풍물시장 일대 통합개발) 풍물시장, 동대문도서관 등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노후하고 활용성이 낮았던 공공 부지를 문화 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

(홍릉 일대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종합문화예술 회관 등을 조성해 지역문화 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2개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 성격에 맞춰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 보행교 신설,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市)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區) 등에서 검토한다.

(광진 K밸리 청년창업 거점 공간 조성) 건국대 부지에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및 용도,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 조성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의 서북·동북권 인구는 448만 명으로 서울시민 절반가량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음에도 그동안 배후 주거지의 기능만 강조되고 경제·문화적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서북·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중심 新경제도시 강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 저출생 전쟁자금 1억원 통큰기부

## 이철우 도지사,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움 주신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모든분께 감사, 모아주신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밝힘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난 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억원을 경상북도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이철우 지사가 새롭게 구성된 상공회의소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화답하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도내 10개\* 상공회의소의 회장들이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추진에 뜻을 같이하기 위해 성금 모금에 동참하자는 의견을 모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간담회 자리에서 신임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은 "저출생 극

복을 위한 성금 기부에 지역 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움을 주신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모아주신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한울본부, 2024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 기부 이벤트

## 15일부터 30일까지 재활용 키링 또는 실리곤 지퍼백 기념품 지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4 한울본부 병뚜껑 업사이클링 장난감 기부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참여 희망자는 한울에너지팜 내 친환경 소재로 조성된 이벤트 존에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을 활용한 전시를 관람하고 병뚜껑을 제출할 수 있다.

목표치 4,000개가 달성되면 이벤트는 종료되고, 병뚜껑을 활용하는 장난감 키트를 울진군 관내 아동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시 병뚜껑 40개당 기념품 1개를 제공하며 인당 1회 선착순으로 수령 가능하며, 상품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키링과 실리곤 지퍼백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울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i\_hanul)을 참고하거나 한울원자력본부 홍보부(T.054-785-2941)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친환경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규범을 만듭니다.

**정책대안 제시**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듭니다.

도민 행복

**예산안 심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핍니다.

**집행부 견제·감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정책을 체크합니다.

### 경북교육청, 늘봄선도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늘봄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늘봄 학생 개별 시간표 활용 안내  
임종식 교육감, "이번 연수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들 늘봄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고조, 학교 안팎 늘봄 정책 안착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늘봄선도학교 업무 담당 교사(기간제 교사) 18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늘봄 업무 담당자(기간제 교사)의 늘봄학교 정책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늘봄선도학교 추진 계획과 방향을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의 역할, 늘봄 학생 개별 시간표 활용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영호 단포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직접 연구·개발한 늘봄학교 개인 시간표 제작프로그램 소개와 설명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초 학생들이 자기 수업을 못 찾아 헤매는 점에 착안하여 학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강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늘봄학교 업무 담당 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개인 맞춤형 시간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늘봄선도학교 180교에는 기간제 교사가 1교당 1명이 배치되어 늘봄 업무와 수업 지원을 통해 기존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

로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며,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체육, 문화, 예술, AI, 디지털, 사회, 정서, 기초학습, 진로 체험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늘봄학교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늘봄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안팎의 늘봄 정책이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산교육지원청, 2024 경북소년체육대회 성료

- 미래를 위해 다시 뛰는 경산 학교체육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18일부터 7일까지 예천스타디움 및 11개 시·군 25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 2024 경북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성료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이번 대회에서 관내 초·중학교 학생 104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상을 비롯양궁, 레슬링, 유도, 태권도, 수영, 배구, 테니스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오는 5월25(토)부터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관내 54명의 학생선수들이 경북대표로 참가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 먼저 육상은 평산초 외 5개교에서 6명의 선수가 선발됐고, 경산서부초와 정평초 양궁 3명, 봉황초와 진랑중 유

도 2명, 사동중 레슬링 3명, 진랑초와 부림초 태권도 2명, 경산중앙초 외 3개교 수영 5명, 경산초 테니스 3명의 학생선수들이 경상북도 대표로 선발되는 등 작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경산 학교체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아울러 남자 초등 배구경기에서는 하양초가 구미 인동초를 이기고 우승을 거둬, 2년 만에 경북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얻었으며 밖에 러비는 경산중이 경북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경산 학생선수들은 압량중학교 3학년 서예준 학생이 출전하는 육상 100m, 200m, 400mR에서 3관왕을 비롯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게

된다. 경산교육지원청 박경화 교육장은 "이번 대회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데 노력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했다. 송광삼/기자



### 도전! 안전골든벨을 울려라

2024학년도 교내 안전골든벨 대회

문충초등학교는 지난 8일(월) 13시 10분부터 2024학년도 교내 안전골든벨 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한편, 올바른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6학년 학생들이 참가해 뜨거운 승부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강당에 모여 생활안전, 교통·시설안전, 자연재해, 약물 등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며 안전지식을 함양하고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6학년 이지후 학생이 골든벨을 울리면서 퀴즈왕에 올라 최우수상을, 6학

년 이서진, 5학년 김서운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명의 수상자는 4월 말 경북일보에서 주관하는 '2024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에 출전한다. 박현주 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 경북교육청, 노후 특수학급 교실 공간 혁신 사업에 11억 5천만 원 투입



경북교육청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공간 혁신과 환경개선 사업' 운영을 위해 1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특수학급 공간 혁신과 환경개선 사업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환경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 특성, 유형, 학습 요구 등을 고려해 무장애 통합 놀이공간, 심리안정 공간, 배려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간 혁신형 교실 조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

딱딱한 특수학급 교실, 이제는 안녕! 고 학습 능력 향상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형 특수학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19일까지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교에는 교실당 5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학교는 연말까지 공간혁신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우선 대상 선정학교는 노후 학급으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학교, 교실 공간이 좁아서 교실 이동, 통합, 확장의 필요가 있는 학교, 사업 신청의 사유와 활용 계획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학교 등이다. 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 2025학년도 특수학급 신설 예정인 학교, 교내 시설 공사(내진 보강 등) 중인 학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된 예산은 진로직업교실, 치유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먹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영양군 www.yyg.go.kr

### '놀이를 통한 행복한 꿈을 키우는 곳!' 2024학년도 칠곡유아교육체험센터 첫 체험활동 시작!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칠곡유아교육체험센터에서는 지난 9일(화), 성주 월항초병설유치원 외 4개원의 20명의 유아들이 체험활동을 시작하였다. 2011년에 개관하여 한 해 3,000여 명의 유아가 다녀가는 칠곡유아교육체험센터는 칠곡 및 성주, 고령지역 공.사립유치원의 유아를 대상으로 요리활동 외 10개 영역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노후된 복도 벽면과 문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유치원에서 활용이 높은 유아 네임스티커 출력 기기를 구입하여 체험 시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전면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칠곡 관내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여름 특별 프로그램(8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서영 교육장은 "칠곡 및 인근 성주, 고령지역의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행복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특색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 누구나 누리고 만족하는 따뜻한 늘봄학교 구축

-2024학년도 돌봄 및 지역 온(溫)누리 늘봄협의회 개최  
윤인한 교육감, "우리 지역 온(溫)누리 늘봄 협의회를 통해 지역 늘봄학교 운영 사례 홍보/유관기관 협력해, 지역 학생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만들기 노력"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화), 영덕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 및 지역 온(溫)누리 늘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지역 온(溫)누리 늘봄 협의회를 조직하고 교육지원청, 학교, 군청, 지역 유관 기관 등에서 참석하여 위촉장 수여 및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안전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다. 늘봄학교의 개념, 늘봄지원센터 및 늘봄지원실의 조직도 및 업무내용, 지역사회와의 연계 유형 등을 살펴보고, 협의회 협업에 대한 사항, 관내 학생 지원 방안, 늘봄학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협의를 나누었다.



윤인한 교육감은 "우리 지역 온(溫)누리 늘봄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늘봄학교 운영 사례를 홍보함과 동시에 군청 및 각종 지역연계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여 영덕 지역 학생 누구나 누리고 만족하는 따뜻한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ZOOM.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먹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영양군 www.yyg.go.kr. 길, 물, 빛, 맛, 심, 숲.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참벽굴원, 죽백수림, 외씨버섯길.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봉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ida, KOREAN TRAVEL ASSOCIATION, callisto, 영양관광공사

# 문경시, 1조 790억원 규모 1회 추경예산 편성

### 신현국 시장 “이번 추경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최우선,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두고 편성, 안이 확정되는 즉시 피해 복구 추진, 안전 문경 만들기에 총력”다해



문경시는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1조 79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본예산 대비 총 1,490억 원(16.02%)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300억 원, 특별회계 190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작년 6~7월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6.85%인 총 349억 원을 피해 복구 예산으로 편

성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및 역점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가시화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수해 피해 복구 사업으로는 농업 관련 기반시설 복구비 31억 원, 도로 복구비 12억 원, 하천 복구비 135억 원, 상수도 복구비 26억 원, 동로면 수평지구 개선복구 107억 원, 견탄교 호우피해 복구공사 3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 중 국비 지원이 불가한 소규모 하천 피해지역 복구비 53억 원과 국비 지원 복구사업의 예산 부족분 51억 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 편성하는 한편, 46억 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 중 21억 원을 수해 복

구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국고 지원 범위 외에도 자체재원을 적극 투입하여 조속한 피해 복구와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재해재난 지역 응급복구 3억 1천만 원, 재난대비 장비임차비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3개 읍면에는 각 1억 원의 응급 피해 복구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소규모 피해 복구와 주민 불편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으로는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80억 원, 외식창업테마파크 조성 20억 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 3억 원, 전국·국제 단위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43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외에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필수경비 및 각종 현안사업에 예산 추진 단계에 맞게 예산 반영하여 최적의 시기에 예산 편성과 신속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작년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문경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주 도자기 축제 19일 개막’ “감성과 실용의 정교한 만남 엿본다”

경주지역 도자기와 생활 공예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소장할 수 있는 ‘제22회 경주 도자기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펼쳐진다.

경주도예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한다.

축제는 ▲전시·판매 ▲만들기 대회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주도예가협회 36개 업체는 도자기 1500여점, 목공예품 등 기타공예 200여점을 전시해 전시·판매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청룡의 해를 맞아 ‘청화백자 특별전’을 준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얀색의 도자기에 푸른 색채로 가득 채운 화려한 매력의 청화백자는 장인의 정교한 기술과 다채로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중앙부스에서는 가족 도자기 만들기 대회를 21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도

자기 만들기 대회를 27일 오후 2시부터 각각 개최해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유도한다.

또 흙 밟기 체험, 유명자가 발물레 시연, 토우 만들기 등을 비롯해 고유 창작을 이용한 다도 시연 및 시을 등으로 이색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토·일요일에는 무대공연과 버스킹 공연으로 행사장 흥을 돋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재해석을 더해 경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보다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역 도예가 협회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축제기간 하루 하루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지역 도자기와 예술가들의 멋과 혼을 느껴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 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평생교육으로 ‘인생2막’ 지원

### 군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서비스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 - 김광열 군수, “100세 시대의 평생학습은 인생 2막의 즐거움과 행복의 밑마당,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위해 배움의 장으로 나선 여러분이 자랑스럽어”



영덕군은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의 첫 강의로 ‘음악 놀이를 통한 긍정 마인드셋’을 진행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1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1층 강의실에서 수강생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개강식을 열었다.

올해로 4회째인 도민행복대학 명예학사 과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로 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지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개강식에서 김광열 군수는 “100세 시대의 평생학습은 활력 넘치는 삶의 바탕이자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통해 인생 2막의 즐거움과 행복을 열어주는 밑마당”이라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배움의 장으로 나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응려했다.

한편, 올해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는 대구한대 평생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50여 명의 수강생이 첫 강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0주간 인문학, 경북학 등 7대 영역의 강좌를 수강하고 사회참여 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장문화/기자

# 대구 남구, 숙박업소 불법촬영 탐지카드 제작·배포

대구 남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남구의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업소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불법 촬영 탐지카드를 제작·배포하여 불법 촬영 근절에 나선다.



오는 4월 15일부터 불법 촬영 탐지카드를 관내 숙박업소에 배포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육안 식별 요령 및 자가 점검 교육을 실시해 향후 업소에서 자율 관리가 가능하도록 점검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며, 숙박업소 현장점검 및 공중위생서비스평가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숙박업소 종사자에게 배부된 탐지카드를 이용해 상시 점검 체계 구축·운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불법 촬영이 없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남구 숙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 포항시, 지역 병원과 손잡고 ‘포항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나서

### 이강덕 시장,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틀 탄탄하게 다져가겠다”

포항시는 9일 지역 5개 종합병원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인석 포항의료원장,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정대일 성모병원 행정처장, 김문철 에스포항병원장, 신중균 좋은선린병원 행정원장 및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와 지역 내 종합병원 및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발굴 및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마련

됐다.

이번 협약으로 일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발굴에 의료기관이 힘을 보태게 되면서 퇴원 후 돌봄 가족이 없어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은 기존 영유아와 노인 중심의 돌봄 서비스 영역을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확장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틀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지원하고 나



가 포항형 통합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 가사, 식사관리,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태용/기자

# 2024년 달성청년혁신센터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 대구 달성군, 달성청년혁신센터 청년 동아리 총 10개 팀 선발 - IT 및 기술창업, 미디어,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 동아리 활동 시작

달성청년혁신센터는 지난 8일, ‘2024년 달성청년혁신센터 청년동아리 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청년동아리 사업은 지역 내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 세대의 교류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청년 동아리 대표 및 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에게 사업내용, 보고서 작성 교육,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해당 지원사업은 대구시에 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 3

인 이상이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선정된 10개 동아리에는 팀별 최대 12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IT 및 기술·창업, 미디어/콘텐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팀이 선발되었으며, 활동기간은 4~9월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또, 10월에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동아리 활동 경험을 공유하여 우수 동아리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역 내 청년들의 다양한 교류와 모임이 많아져 청년들의 관심사와 필요에 부응하고, 이 사업이 달성청년혁신센터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모인 청년동아리를 시작으로, 추후 계획되어 있는 청년 토크콘서트, 특강은 수요 대응(청년 맞춤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 봉화 물야저수지에서 벚꽃과 함께 물가를 걷다

### 봉화 물야저수지 주변 벚꽃 이번 주말 절정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의 벚꽃 명소에는 꽃을 구경하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 대부분 지역이 ‘벚꽃 엔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벚꽃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경북 봉화군의 물야저수지를 추천한다.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에 있는 물야저수지 주변에는 약 3km의 벚꽃길이 있다.

물야저수지는 백두대간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어 벚꽃이 인근 지역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시기에 개화하는데 이번 주

중에 개화를 시작해 주말인 오는 13일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야저수지는 수려한 주변 경치와 연분홍빛 화려한 벚꽃이 저수지 물빛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낸다.

물야저수지를 따라 줄을 지어 만개한 벚나무들이 벚꽃터널을 이루고 있어 드라이브하며 벚꽃을 감상하기에 좋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오전약수관광지에는 화덕에서 갓 구운 피자과 탄산 약수물로 고아낸 닭백숙을 맛볼 수 있는 식당 등이 즐비해 꽃구경도 하고 맛있는 먹거리



도 즐길 수 있다.

아직 벚꽃 나들이를 하지 못했다면 가족 혹은 연인, 친구들과 함께 물야저수지를 찾아 산바람에 휘날리는 연분홍 꽃비를 맞으며 가볍게 걸여보는 것을 추천한다.

김선열/기자

# 군위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예방약품 공급

군위군은 최근 증가하는 각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청정 군위축산을 사수하기 위해 예산 총 3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25종과 소독약품을 관내 축산농가에 4월 중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약품은 2024년 군위군 가축방역협의회 심의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약품 위주로 선정됐으며, 축종별로는 한우 및 낙농분야에 소문저기증저, 소우행열, 소아까바네, 송아지피부병 등 13종, 양돈분야에 돼지열병,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호흡기질병, PRRS 등 5종, 양계분야에 감보로병, IB 3종, 양봉분야에 음매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3종, 광견병 백신 등이다.

한우 및 낙농분야 백신은 오는 4월 26일까지 공수의사가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접종할 예정이며, 양돈분야는



4월 19일까지 군위농단지부 사무실에서, 양계분야는 4월 30일까지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에서 공급할 예정이고, 양봉분야 백신 및 기타 소독약품은 읍면별로 배부하여 각 읍면사무소에서 4월 중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축산농가는 예방백신을 역가 보존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지참하여 약품별 공급처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수령 즉시 접종을 완료하여 가축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의 자체 방역이 중요한 시기이니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해양치유완도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 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느리게 거어보 려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